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 (역사학연구소, 서해문집, 2005)

새로운 아카이브 분할선을 그리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

이 영 남*

하나의 새로운 분할선이 그어지고 있다. 국가단위의 분할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분할선이 그어지고 있다. 국가 단위의 아카이브 분할선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표면화가 되었지만, 우리 일상의 아카이브 분할선에는 그런 상징적 사건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분할선이 그어지고 있다. 마치 지진의 미세한 흐름처럼 멀리서 서서히.

어떤 책은 하나의 흐름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역사학연구소, 2005, 서해문집)도 아카이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의 흐름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흐름은 아카이브 내부에서 일어난 파도가 아니라 아카이브 바깥에서 일어난 파도였다. 먼 기원을 말한다면 1960~70년대 유럽의 역사학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부터 짚어야 한다. 이때 이런 슬로건이 등장했다. 이제는 노동운동의 역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문화를 역사로 남기자. 이와 동무되어 함께 등장

* 풀무학교 전공부.

했던 것은 역사작업장운동(History Workshop Movement)이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영국의 맑시즘 역사가 톰슨(E.P Thomson)이다. 당초 마르크스 역사학은 역사서술의 전제로 혁명의 전위로서 노동자계급을 상정했고 그래서 혁명적 노동자 그룹이나 노동조합을 역사의 주체로 서술했다. 이런 역사서술 전통에서 노동자의 삶과 문화를 역사화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 대한 단상을 적는 수준으로 말해보자.

위건부두로 가는 길은 조지 오웰이 영국 북부의 탄광 지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을 ‘노동 계급의 삶’의 시각에서 정리한 르포르타주이다. 조지 오웰은 탄광 지대의 실업 문제에 대한 르포를 청탁받고 두 달에 걸쳐 탄광 지대에서 노동자들이 묵는 싸구려 하숙집에 머물며 조사활동을 벌인다. 자신이 묵었던 하숙집 풍경과 하숙집 사람들, 탄광 안의 모습, 광부들의 임금과 실업자 가정의 생활비, 각각의 주택 구성과 재건축 문제 등을 그는 매우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런 내용은 종전의 공산주의 혁명사 서술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미시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는 노동자 문화를 세밀하게 연구하려는 역사가에게 흥미로운 것들이 담겨 있다. 조지 오웰은 혁명을 위한 당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삶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30년대 스페인 전쟁에 참여했을 정도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기에 시종일관 계급적 시각에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문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가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강조했던 것은 노동자에게는 혁명 못지않게 삶과 문화도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사실 서구의 1960년대는 68혁명으로 상징되는 커다란 변혁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때의 슬로건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위건부두로 가는 길의 슬로건은 아마도 ‘혁명이 아니라 일상’ 정도가 될

것이다.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는 진보적인 역사학단체인 역사학연구소가 2003년~2005년에 수행한 프로젝트를 정리한 책이다. 2003년 11월, 역사학연구소는 ‘투쟁의 역사, 희망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창립 15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로부터 2년 동안 몇 가지를 보완해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 아카이브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키비스트의 정체성과 활동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아카이브인가 하는 물음과 연관된다.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를 전체적으로 관류하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혁명의 열풍이 있었다면 2000년대는 어떤 열풍이 있어야 할까?’ 이것을 주체의 맥락에서 좁혀서 말한다면, 노동자는 지금까지 ‘혁명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활동의 주체’여야 한다이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그어지기 시작한 아카이브 분할선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곤 했다. 아키비스트가 정부나 공공단체가 들어가면 뭔가 개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에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전신)에 들어갔던 일단의 사람들은 기록관리법 제정이나 참여정부의 기록혁신 작업 등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아카이브도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사회구성물이며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했기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키비스트가 한때 ‘개혁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주체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까? 누구를 위한 아카이브인가? 이 책,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는 아카이브 종사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다.

두 번째는 아카이브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시각에서 이 책의 2장을 읽다보면 다음의 물음에 봉착한다. 역사가들의 ‘자료 정

리작업'과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정리작업'의 근원적인 차이는 뭘까? 2장을 서술한 정경원은 당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노동운동자료실' 연구위원이었다. 따라서 앞에 한 물음은 '노동운동자료실'과 '노동아카이브'는 또 어떤 근원적인 차이를 가질까 하는 물음으로 확장된다. 지금 아카이브 분야의 아킬레스건은 기록물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작업은 매우 부진하다. 부진한 세부분야가 어디 한 둘이냐고 하면 정말로 목록을 작성해야 할 정도로 산적해 있겠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근원적인 차이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 역사기록의 주체로 서다>에서 구사한 용어, 방법론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기술(description)이었다. 나머지 사항들은 대체로 '상식적으로' 소통이 가능해보였다. 말하자면, 역사학 진영과 아카이브 진영이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카이브 담론과 실제 영역에서 핵심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어떤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된다. 아카이브가 역사와 진정으로 구별이 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카이브 종사자들이 '전문지식인 기술'을 충분히 소화해서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생활지식'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기록물의 정리기술 작업이 올 해 중에 완료가 된다면 아마도 단위기록물을 기록물 기술로 통제하는 처음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기록물 전체를 기록물 기술을 통해 통제하는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이 아카이브의 현실이다. 이 책,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는 아카이브 종사자들에게 이런 현실을 되짚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말에 국가 단위의 아카이브 분할선이 그어질 때 ‘백서작업’은 하나의 이슈였다. 예를 들면 이렇다. 백서를 만들려고 하면 기록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록현실이 문제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백서를 만들고 난 이후이다. 백서작업을 계기로 모은 기록물도 그 후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없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이런 해프닝을 벌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기록관리시스템도, 기록문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이슈 파이팅을 매개로 제도적인 아카이브 분할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적어도 2005년 기록연구사의 공공기관 배치국면까지는 이런 모양새였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분할선이 그어진 이후 아카이브는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카이브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었고 아카이브 담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아카이브 산업도 제법 규모가 있다(여기에서 백서는 우리가 보통 ‘자료정리작업’이라고 하는 편찬작업을 대표한다).

이 책의 2장(‘노동자, 역사기록의 주체로 서다’)에는 아카이브 종사자에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만,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백서작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백서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역사학 분야와 노동운동 진영의 몇 가지 이슈를 진지하게 제안했다. 그런데 백서작업, 자료정리 같은 말처럼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많이 거론되는 책은 일단은 유행이 지난 후에 읽어야 한다.” 발터 벤야민이 했다는 이 말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백서, 자료정리 같은 말들에 대해 이제는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부터 아카이브 분야에서는 일상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같은 말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우리 일상에 그어지는 아카이브 분할선의 지표가 될 것이다. 백서작업, 자료정리처럼 자주 거론되었던 것들은 이제 우리 일상에 새롭게 그어지는 아카이브 분할선에서 새롭게 새롭게 떠올라야 한다. 『노동자, 자

기 역사를 말하다』는 2005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발터 벤야민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아카이브 분할선을 그리는 사람들이 일독할 만한 책이다.